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노동운동과 민족의 과제

이 규 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민족, 계급문제는 하나다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제가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전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한 자리이고 해서 우리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단병호 동지가 꼭 오신다고 하는 걸로 전제하고 통일국에서 자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준비된 민주노총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대우사태가 터지고 지금도 부평공장 뒤에 있는 성곡성당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어 위원장께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과 민족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통일이 됐을 때, 그래서 노동자 철학이 사회 전체에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어떤 계급도, 계층도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월혁명회가 사전에 모아주신 질문지에 기초해서 제가 약 3,40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번 단병호 위원장은 그 동안 계급운동에만 치중해온 감이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 민족문제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운동 계획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늦게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중에는 한 달에 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봉이 7,8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국민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사들도 있습니다.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이 좀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처음 조직적으로 결정한 것은 평화 군축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비를, 국방비를 줄여 가지고 이것을 사회 복지 예산으로 분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같은 과중한 국방비를 지출해 가지고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이나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의료보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지금보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평화 군축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민주노총에서 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문제와 관련된 운동으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 돕기도 해가면서 정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는 절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통일위원장이 되고 하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게 먹혀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역시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60만이나 되는 치렁치렁한 큰 조직을 가지고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가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좀 늦기는 해도 한번 결정하면 뒤로 더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아마 노동자들, 우리 민주노총의 하나의 강점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출발이 늦은 만큼, 선도적인 그룹을 짓히고 우리가 무슨 선도 투쟁도 다 하고, 저희가 다 한다는 생각은 해서도 안될 것이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범민련이나 자통협, 사월혁명회와 같은 선진적인 분들, 선각되신 분들한테 지도도 받고 하면서 또 노동자들보다도 더 뒤쳐진 시민사회단체 같은 데를 이끌기도 하면서 그렇게 중심에 서서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일꾼 부대 꾸릴 것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민주노총은 그 동안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민족화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운동 계획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99년 8월에 축구대회를 한 것은 사실은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없죠. 하나의 축구게임이니까 정치적 부담은 없는데 그런대로 분단 이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만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정부에서는 ‘축구만, 축구만’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말고, 축구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그런 요구가 있었습시다만 실무회담을 8박 9일을 하고 올 때도 그렇고 4박 5일 축구대회를 하고 올 때도 그렇고 사람끼리, 더군다나 처음으로 남북의 노동자들이 만나 가지고 축구만을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난 해에는 우리가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남쪽에서는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구대회는 민주노총만 갔었습니다만 토론회는 한국노총까지 함께 가서 우리가 통일되는 날까지 잠시도 놓아서는 안될 6.15공동선언을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남북의 노동자들이 합의를 하고 그것을 남북의 노동자들에게 비록 호소문의 형식을 통했습니다만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북의 직총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의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비록 조합원은 60만이 조금 넘지만 노동자들이 가야 될 길, 노동자들이 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운동을 이끌고 나간다면 실제 남북의 노동자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한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노동자들이 6.15선언을 움직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의 사업은 민주노총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일정부분 민주노총이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연맹과 지역본부가 남북교류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쪽의 전국교직원노조가 북쪽의 문화교원직맹과 만나 가지고 아이들 교과서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아이들 교육문제를 논의한다거나 또는 병원 산업, 남북의 의료산업 노동자들이 만나서 남북의 의료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고치고 한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 북쪽에서 노동자들의 주택문제, 교육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왔을 때 우리는 요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쪽의 노동자들이 남쪽에 와서 보고서 자기들이 갖지 못한 제도를, 우리가 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그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입지가 운동에 상당한 도움

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에 가서 노동자들을 보고 온 한 실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쪽의 직맹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남쪽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서 식사를 해봤고 시멘트 공장 현장 노동자의 집에도 똑같이 초대를 받아서 가봤어요. 그런데 직맹의 부위원장이라는 사람 집은 한 스물두세 평 되고 일반 노동자의 집은 한 서른일곱, 여덟 평 되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물었더니 그쪽 노동자들 얘기가 직맹 부위원장은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 다 출가시켜 놓고 막내딸 하나 데리고 두 식구가 사니까 스물세 평만 되도 넉넉하고, 이 집은 젊은 노동자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고 부모 모셔야 되니까 집이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구를 보더라도 직맹 부위원장 집에 있는 게 일반 노동자 집에도 똑같이 있고 다 똑같아요.

제가 북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위원장님 거기 올라가거든 건설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나 좀 물어보고 오슈.” 그래서 “뭐 그거야 어렵겠느냐, 내가 가서 꼭 알아보고 오마” 하고 북에 가서 물어봤더니 건설노동자들이 “잘 삽니다” 그래요.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임금에서 탄광노동자하고 뭐 무슨 노동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임금이 높은 게 건설노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그래 좋다. 임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름 장마철에 일 못하고 겨울에 날 추워 일 못하고 그런 건 어려운 것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왜 여름 장마철에 일을 못합니까. 겨울에 춥다고 왜 일을 못합니까. 일 년 내내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01년 하면 2001년 건설물량을 딱 미리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원 배치를 해서 봄 되면 골조공사를 하고 여름에 비올 때는 내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배관공사를, 가을되고 겨울이 되면 유리창, 문짝해 올라가면서 내부 난방시설을 한다 그래요. 그렇다치고 남쪽에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산재 건수의 삼분의 일이 건설노동자들인데 여기서는 산재노동자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떻게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건설노동자라고 해서 산재가 더 많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열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안전요원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종일 작업장을 맴돌면서 안전시설이 조금 미비하거나 하면 ‘이거 고친 후에 하시오’ 하면 아무리 급한 공사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단도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일을 하니깐 건설노동자라고 해서 산재가 더 많은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직맹과의 사업은 그 사업대로 풀어나가고 그러면서도 연맹별로 지역본부별로 연대와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고 깊게, 심화시켜 나가는 사업을 할

생각이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좀 먼저 깨친 사람들의 운동에서 이제 그 운동을 대중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60만 조합원이라 한다면, 그 중에 10, 20만 명은 통일일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일꾼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하나의 통일일꾼 부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과 노동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것이 “남북경협차원에서 앞으로 남한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양산 지역에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지금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고 남쪽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그리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산의 신발이나 대구의 섬유산업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북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 부산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커다랗게는 우리가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군축으로 나아가면서 사회복지예산을 늘려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이 교류를 할 때 남쪽의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섬유산업, 신발산업 같은 것은 어차피 남쪽에서의 경쟁력은 이미 잃어버린 산업인 것입니다.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면 그것은 어차피 남쪽에서는 견딜 수 없는 산업이고 동남아나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것이 북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보다는 경제협력이 돼 가면서 이런 것에서 오는 이익이 엄청나다, 통신분야나 건설분야, 특히 도로공사, 항만공사 또는 전력분야 등 협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것보다는 월등히 남쪽 노동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북쪽이 지금처럼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이 될 때 천민자본주의가 거기까지 다 가면은 그것은 통일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것도 옳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통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소위 자본이나 권력이 노동자들 이익에 합당한 통일을, 또는 이익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운동인데, 마찬가지로 통일운동을 남의 일처럼 건너다보고 있는다면 통일이 그 노동자를 위한 통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하는 것 등이 민주노총의 강령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해서 정말 남북이 공히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이루고자 하는 제도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조국에서 주인이 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설명을 합니다만 저희가 통일위원회에서 해보면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논리를 자꾸 개발해 가면서 교양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남과 북이 떨어져서 살 수 없게끔 모든 조건이 돼 있다. 그것이 남쪽에 들이 넓고 북쪽에 들이 좁고 자원이 많고 남쪽에는 들이 넓고 자원이 적고,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지금 남쪽의 식량 자급률이 25%라고 하는데 남쪽의 농업과 북쪽의 농업이 결합을 할 때 우리는 월등히 높은 자급에 근접하는 생산을 해낼 수 있고 그런 민족농업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북쪽에 석유가 있다고 해서 회담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요? 그러니까 저쪽 동지 얘기가 ‘있습니다.’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쪽 친구 얘기가 페르시아 만에 버금가는 석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석유가 매장된 데는 남포에서 황해도까지 내려오는 해안지대로 저 동해안 지대로 가면 명천리라고 기름띠가 있다고 그러디다. 그 동안에 가서 여러 차례를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랬지만 그쪽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못 들어 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14일 내려오느냐 15일에 내려오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저쪽에서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제방을 쌓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쌓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15일에 내려가라...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하루 더 붙들어 두려고 하는 소리라고 얘길 했었는데 막상 그 다음 날 판문점을 거쳐 내려오는데 여기서 제공한 버스에 안내하는 육군 중령이 ‘북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느라고 참 애 많이 썼다, 저 사람들이 밤새도록, 아침 내내 조금 전까지 해서 제방 공사를 막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야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물난리 때문이라는 게 사실이었구나’ 하고 탄식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석유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시베리아에 가스를 석유관을 묻어서 끄집어오고 일본까지 간다 이러는데 만약에 해주, 남포에서 나오는 석유가 파이프를 해서 대구로 내려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광주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에너지 수입량이 한 200억 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북이 경협을 할 때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불필요한 외교경쟁을 해가면서 입는 정치적·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통일운동은 이제 1단계 사업정도는 돼 있다. 말하자면 연맹이나 지역 본부나 어디서든 임원선거를 하고 하면은 통일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이 단골메뉴로 들어갑니다. 제가 2기 임원 때 처음 출마했을 때는 통일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공약 내건 사람이 저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어느 선거에서나 통일운동은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 서울지역 본부장 선거를 할 때 후보 세 사람이 다 열심히 통일운동 하겠다고 선거 공약 발표를 하는데 그 세 후보가 발표시간의 3분의 2정도를 통일과 관련해서 소요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앞으로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민주노총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연대사업입니다. 그 동안 민중연대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노·농·빈이 함께 수련회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후속사업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노동자가 따로 모이면 한 3만 모이고 농민이 따로 모이면 한 2만 모이고 그러는데 이게 같이 가면 5만이 모여야 되는데 같이 합쳤을 때는 3만도 안 모였어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통일운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연대연합, 연대연합...’ 말은 하면서도 연대연합을 한다는 것이 아직 좀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입장과 실천계획은 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민주노총이 통일운동에서 선봉에서 간다, 발빠르게 진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통일운동이라 하면 저희는 그저 통일운동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면 그저 현장 대중과 유리되지 않도록 선각적인 단체가 제시한 방법 등을 조심스럽게 집행하면서 뒤따라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월혁명회보 제 60호(2001. 4)

(제72회 월례발표회 발제문)